

제목: 앞으로 나아갈 길 (마가복음 9장 2-9절) 02.11.2024 목사 : Sue Melrose

때때로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 북동부 포코노 산맥에 있는 커크리지 리트릿 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커크리지 리트릿 센터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벗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어느 오후 휴식 시간, 저희 일부는 리트릿 센터를 지나는 애플래치아 트레일의 일부를 하이킹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마을인 델라웨어 갭까지 내려가는 코스였고, 두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펜실베이니아의 토양은 조지아에서 메인까지 이어지는 이 험난한 길에서 가장 거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이킹 길에는 만발 직전인 진달래 꽃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야생 진달래 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다른 하이커 한 명이 앉아 있는 공간에 도달했을 때 왔습니다. 그의 배낭은 옆에 놓여 있었고, 우리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고의 산과 그 아래를 흐르는 델라웨어 강, 그리고 멀리 은빛 리본처럼 비치는 80번 고속도로가 보이는 장엄한 파노라마였습니다. 그곳에 서서 가만히 있는 동안 할 수 있던 반응은 단지 “확실히...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하이커와 함께 앉아 조용히 앉아 나무잎새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래 강에서부터 들려오는 보트 위 콧노래 소리, 그리고 멀리 어린이들이 강에 뛰어들어 수영하는 즐거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곳을 떠나고 싶어할까요? 누가 이 산을 내려가고 싶어할까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산꼭대기에 이끌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을 헤치고 다니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이상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당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빛났습니다. 주님은 변형되셨습니다. 그것은 누에 고치가 터져 나비가 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화려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 변형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본인도 산꼭대기 경험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온 백성에게 상기시켜 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딱 좋다. 여기 머물자. 내려갈까? 안돼. 우리 모두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보자. 여기 모세, 저기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여기.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요.

이것이 바로 산꼭대기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정상에 있을 때, 고통, 두려움, 혼란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구절은 베드로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랐기 때문에” 집 짓는 것에 대해 계속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들으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만이 그의 모든 영광 안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절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활절의 미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부활절로 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 서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강에서 노는 아이들의 세상이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삶이 전쟁과 폭력, 굶주림, 질병으로 인해 파괴되는 세상도 있습니다. 부활절에 도달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성금요일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산 정상에서 부활절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힘을 얻습니다. 그 비전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앞으로 나아갈 여행의 길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미래로 가는 길은 성금요일의 땅을 따라 가지만 우리는 부활절의 정원에 도달할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목소리는 경외심으로 단련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이해로 단련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가장 오래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모든 과거의 계시에 대한 존경심으로 단련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단련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선포와 침묵 사이의 긴장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변화가 탄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련됩니다.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 십자가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새 당회와 안수집사들이 선출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부활절의 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칠 때 세상은 우리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이 교회와 가까운 곳과 먼 곳의 모든 작은 교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교인들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적은 돈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일주일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가는 여정입니다. 고통과 죽음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은 50년 전, 20년 전, 1년 전과 다릅니다. 십자가로 가는 여정은 힘든 여정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이미 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는 여정입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구름이 걷히는 순간의 그 희미한 빛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추고 과거와 현재가 합쳐지며 부활절이 다시 올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는 변형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